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시대 - 포퓰리즘 정권의 퇴조¹⁾

안드레스 오펜하이머

2016년 2월 21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다음 대선 출마를 노리고 실시한 선거규정 개정관련 국민투표에서 패배했다. 좌파 포퓰리스트 정권의 수장이 퇴진하고 실용주의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권에 이어 2000년대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표방한 ‘21세기 사회주의’까지 지난 25년간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슬로건이 라틴아메리카를 휩쓸었고, 사람들은 정치구호를 듣는 데 지쳤다. 라틴아메리카 전지역, 특히 남아메리카에서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국민은 자국 포퓰리스트 대통령에게 정치적 패배를 안겨주었다. 집권당 출마자에게 유리하게 짜인 선거 규정도 국민의 의사 표명을 가로막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에콰도르와 브라질에서도 정치지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의 변화는 의미심장하다.

작년 11월 아르헨티나에서는 마우리시오 마크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공학도 출신의 중도 우파로, 특정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기를 꺼려하며 실용주의자를 자처한다. 전임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치네르와는 판판이다. 키르치네르는 지속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무자비한 자본

1) 출처:

www.elnuevoherald.com/opinion-es/opin-col-blogs/andres-oppenheimer-es/article62919167.html



2016년 2월 21일 국민투표에 참여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 (출처: www.larepublica.ec)

주의에 대한 비난을 직접에 늘어놓아 국민을 괴롭혔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중도 우파연합이 12월 6일 총선을 휩쓸었다. 집권 여당이 힘을 총동원하고, 유권자를 협박하고, 야당에게 불리한 선거제도를 통하여 이에 맞섰지만 소용없었다. 이제 국회를 장악한 중도 우파연합은 헌법을 통해 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탄핵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다.

볼리비아에서는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모든 권력과 대부분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패배했다. 2005년 취임한 모랄레스 대통령이 임기를 2025년까지 늘리고자 4선이 가능하게끔 선거규정을 바꾸려고 실시한 국민투표였다.

에콰도르에서는 심각해져가는 경제적 어려움에 마주한 포폴리스트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는 정치적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고선거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4년 당선이 무효 처리되고, 대선을 앞당겨 치를 수도 있다. 선거운동 자금 스캔들 때문이다. 2014

년 당시 호세프 측에서 선거전략을 책임진 조아우 산타나는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의 대선자금 지원 의혹에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지난 주 체포되었다.

미주민주화기구(Interamerican Institute for Democracy) 소장을 맡고 있는 플로리다국제대학교의 정치학과 교수 기에르모 루스토는 라틴아메리카 포퓰리즘 조류의 쇠퇴 시점을 작년 마크리의 당선이 아닌, 2011년 페루에서 오안타 우말라가 대통령에 당선된 때로 본다.

루스토 교수에 따르면, “우말라는 처음 차베스와 비슷한 노선을 취했지만 차베스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재빠르게 알아채고 방향을 바꿨다. 이제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이데올로기를 앞세우지 않는 대통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라틴아메리카 정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대중의 지지를 받은 라틴아메리카 좌파 포퓰리스트 정권은 석유와 원자재의 국제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호황의 수혜자였다. 이제 그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여 분배할 자금이 바닥났고, 부패가 만연한 정부에 국민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라틴아메리카의 차세대 지도자는 경기불황에 맞서 긴축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몇 년 후, 물러난 포퓰리스트 수장은 국민에게 “내가 집권했을 때 처음으로 자가용을 살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반복되는 포퓰리스트 정권의 고리를 끊으려면, 새로운 세대의 실용주의 노선 대통령은 재정 낭비를 막는 강력한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소득의 일부를 양질의 교육과 보건, 사회기반시설에 고정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라틴아메리카 실용주의 시대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승주 옮김]

안드레스 오펜하이머 — 미국에 거주하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이승주 —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박사과정